

언어 영역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③	5	④
6	①	7	⑤	8	①	9	④	10	②
11	①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③	17	⑤	18	⑤	19	②	20	④
21	④	22	⑤	23	①	24	①	25	④
26	③	27	⑤	28	③	29	⑤	30	②
31	⑤	32	④	33	①	34	②	35	④
36	②	37	①	38	③	39	②	40	①
41	②	42	④	43	⑤	44	⑤	45	④
46	③	47	④	48	②	49	③	50	④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을 듣고 교훈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제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세요? 항상 ‘달밤’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 이)

진행자 : 10년 전,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꼭 오리라 믿었던 친구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 다. 참 무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급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내 : “이를 어째요, 예식이 벌써 끝나 버렸으니……. 고속도로가 막혀서…….”

진행자 :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친구 아내 : “죄송해요, 찬호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그 대신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진행자 : 친구 아내는 조용히 하얀 봉투와 봉지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E)

친구 : 미안하다,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이렇게 좋은 날, 길거리 사과 장수이기에 네 곁에 있어 주지 못함을 이해해 다오. 어제는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워 번 돈 만 삼천 원을 보낸다. 하지만 힘들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내게는 너와 함께 했던 꿈 많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아내 편에 사과 한 봉지를 보낸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진행자 : 친구 아내가 전해 준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석 장이 담긴 하얀 봉투, 그리고 봉지에 담긴 사과 몇 알……. 지금도 그때 그 친구를 떠올리면 눈물이 팡 뜹니다.

방송 사연은 하루 벌여 하루를 사는 길거리 사과 장수인 가난한 친구가 ‘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아내 편에 전달 번 만 삼천 원과 사과 한 봉지,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축하하는 내용이다. “진실이 담긴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 [출제의도] 강의를 듣고 설명 내용에 적합한지 않은 그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화재 예방 교육의 일부분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소방대장입니다. 화재의 특성상 발화 초기에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

다. 그만큼 화재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효율적인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화기가 여럿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그럼, 혼자 있을 경우나 소화기가 한 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바닥 쪽에 있는 낮은 불꽃부터, 그리고 불을 끄는 사람에게서 가까이 있는 불꽃부터 분사해야 합니다. 화재 초기 진화용인 소화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불을 끄는 사람의 먼 곳부터 진화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실내에서 소화기로 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문을 등 뒤에 두고 분사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불길이 커졌을 때, 문을 등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장이 낮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불이 났을 때에는 소화기를 불꽃이 아닌 천장 쪽에 분사해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실외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분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달려들어 불을 끄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고 있으면,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⑤는 소방대장의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잘못된 것은 ②번 그림으로, “바닥 쪽에 있는 낮은 불꽃부터, 그리고 불을 끄는 사람에게서 가까이 있는 불꽃부터 분사해야 한다.”는 소방대장의 두 번째 말과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마지막 말에 어긋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 [출제의도] 대화 내용을 이해하여 문제에 적절한 답변을 찾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니?

여학생 : 응, ‘회문’에 대해 쓴 책인데, 무척 재밌어.

남학생 : ‘회문’? 그게 뭔데?

여학생 : 내가 수수께끼 널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 곰이 물구나무서면?

남학생 : 에이, 유치하긴……. 그건 ‘문’이지, 뭐야.

여학생 : 빙~고!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이 되는 거랑 비슷해. 회문은 앞뒤 어느 쪽부터 읽어도 의미와 형태가 똑같은 단어나 문장이거든.

남학생 : 앞뒤 어느 쪽부터 읽어도 의미와 형태가 똑같은 것이라? 글썄, 그런 말이 어떤 게 있는데?

여학생 : ‘다들 잠들다’, 이 걸 뒤에서부터 읽어봐.

남학생 : ‘다-들-잠-들-다’…… ‘다-들-잠-들-다’. 어,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게 회문이라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 맞나 봐. ‘아, 좋다 좋아’. 이건 어때?

여학생 : ‘아, 좋다 좋아?’ 어, 그러네. 이제 보니 너 제법이구나.

남학생 : 내가 원래 천재잖아!

여학생 : (귀엽다는 듯) 그래 맞다, 천재 씨. 이번엔 좀 긴데, 들어 볼래? ‘다시 합창합시다’.

남학생 : ‘다-시-합-창-합-시-다’ …… ‘다-시-합-창-합-시-다.’ 야, 신기한데!

여학생 : (웃음) 재밌지! 회문은 눈에 잘 띄고 오래 기억되니까 상호나 상품명 또는 로고를 만드는 데도 매우 유용하대.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도 충분히 생각해 야지. 그럼 천재 씨! 이번엔 회문으로 상호를 하나 지어 보실까?

남학생 : 그러니까 ……, 상호니까 그 업종하고도 관련이 있는 의미가 필요하겠지? 으음 …… , 이건 어때?

회문은 앞뒤 어느 쪽부터 읽어도 의미와 형태가 똑같은 단어나 문장을 말한다. 이런 회문 원리를 이해하고 업종과 관련된 상호명을 짓는 문제로, ③, ④, ⑤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② ‘기리기 제과점’은 회문에는 맞지만 남학생 마지막 대화 ‘업종하고도 관련이 있는 의미’에는 맞지 않는다. 반면 ①은 회문이면서 ‘업종하고도 관련이 있는 의미’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 [출제의도] 좌담 내용을 듣고 이어질 질문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좌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에 편안히 주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기상청 수석 연구원인 김현민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열대 기후 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 박사 :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박사님, 먼저 아열대 기후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김 박사 : 예, 아열대 기후란 월 평균 섭씨 10도 이상의 기온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기후를 말합니다. 그 특징은 강수량이 많고 비오는 날이 특정 기간에 집중돼 우기와 건기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선 대만과 일부 지역이 대표적인 아열대 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 : 그래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 박사 : 먼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상으로 여름이 길어질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의 경우 2005년도에 월 평균 섭씨 10도 이상인 달이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930년대 서울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0년대에는 무려 23일로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또 다른 현상은 어떤 게 있지요?

김 박사 : 네, 강수 일수는 감소되는 반면에 강수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연평균 기온이 오름에 따라 동·식물 생태계도 바뀌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아열대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김 박사 : 가장 큰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질어져 1980년에 비해 2006년에는 무려 35ppm이나 올랐고, 연평균 기온도 100년 전에 비해 1.5도나 올랐고요.

진행자 : 그러면 그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나요?

김 박사 :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 신체가 아열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리작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와 같은 아열대성 질병이 늘고 건기에는 식수 공급도 부족할 것이라 봅니다.

진행자 :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기후의 특징과 대표 지역은 두 번째 나오는 김 박사의 말에, 아열대 기후의 원인은 다섯 번째 나오는 김 박사의 말에, 문제점은 네 번째, 여섯 번째 김 박사의 말에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데에 따른 대책’은 좌담 내용에 없으므로 진행자가 질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 [출제의도] 좌담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김 박사는 진행자의 질문에 각종 통계 수치를 들어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쓰 기 ****

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보고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이다.

그림의 핵심은 고정된 생각에 얽매어 타인의 생각을 부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즉 자신의 고정관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7. [출제의도] 자료를 보고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자료1>은 조기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자료2>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 학자금 유출 현황을 보여 준다. 그리고 <자료3>은 조기 유학생들이 영어 사용 국가 중심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 것을 보여 준다. ‘일부 국가에 편중된 유학’과 ‘영재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하고 그것을 주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개요는 ‘Ⅱ-1’과 ‘Ⅱ-2’의 항목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Ⅱ-1’에 ‘Ⅱ-2’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공연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가 ‘Ⅱ-2-라’에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축제를 위한 공연장 부족’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역으로 이용한 댓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방금 벌어진 일도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러한 사람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때론, 잊을 건 빨리 잊어야 한다.’, ‘잊는 것이 때로는 삶에 필요할 때도 있다.’ 정도의 댓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의 주어는 ‘우리들은’으로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은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명사형은 ‘푸름’으로 고쳐야 한다. 시에서는 간혹 ‘푸름’이 사용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적 분위기를 위해 허용된 것일 뿐이지 표준어는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1. [출제의도] 우리말 맞춤법 규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지 묻는 문제이다.

㉠‘졸인다’는 ‘조린다’로, ㉡‘견혀’는 ‘거쳐’로, ㉢‘녹슬은’은 ‘녹슨’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띄어쓰기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에서의 ‘만’은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주먹’과 ‘만’을 붙여 써서 ‘주먹만한’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현대 소설 ****

□ 출전 : 김소진, ‘자전거 도둑’

1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4. [출제의도] 발화가 갖는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잘못된 아들을 교육시키는 아버지가 드러나 있고, [B]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뒤집어쓰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자식을 혼내야만 하는 부분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후반부에서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①매우 두려워하며 조심함, ②크게 성을 냄, ③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님, ④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일이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망설임, ⑤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6. [출제의도] 소설을 영상화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떨리는 아버지의 손은 소주를 흠친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의 표현이지 아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과학 ****

□ 출전 : 홍준의 외,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17. [출제의도] 주제에 맞는 표제와 부제를 붙이는 문제이다.

이 글은 ‘축구공 모양의 탄소 분자’인 플러렌의 발견 과정과 나노 기술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8.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플러렌은 자연계에 아주 소량이 존재하고, 대칭 구조이다. 또한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과 고압에도 잘 견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9.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에 따른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부력의 원리, 항생물질 페니실린, 벤젠의 구조, 전자기 현상 등의 발견은 과학적 고심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들이다. 그러나 케플러의 법칙은 케플러가 우연한 계기로부터 법칙을 찾은 게 아니라, 스승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분석한 끝에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0.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플러렌과 탄소나노튜브는 같은 탄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소체이다.(②, ③) 한편 플러렌은 다른 물질과 어떻게 결합했는가에 따라, 탄소나노튜브는 그 물을 어떤 각도로 마느냐 또는 튜브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⑤) 또한 둘 다 나노 기술에 응용되고 있는 신소재이다.(①)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어 발견한 것은 플러렌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인문 ****

□ 출전 : 김용석, <단절된 두 세계를 잇는 ‘소통의 다리’>

21. [출제의도] 글의 서술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리나라 사례는 제시 되어 있지 않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철학의 문제와 관련지어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글의 마지막 단락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장르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연탄천사’는 연탄은행에 저축하는 사람과 그 연탄을 받는 사람을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당신도, 이웃도 따뜻해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비도 불행한 왕자와 가난한

세계의 사람을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은 연탄은행에 저축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의도]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 ㉡’는 유의관계이다. ①번은 반의관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운문복합 ****

□ 출전 : (가) 정지용, ‘장수산 1’
(나) 이기철, ‘청산행’
(다) 서거정, ‘독좌’

24.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순수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내적 시름을 견디며 ‘옷절 중’처럼 초월한 삶을 따르고자 한다. (나)는 현실에서 벗어나 순수와 무욕의 삶을 지향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5. [출제의도] 두 시를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적 고뇌를 견디어 내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지, 내적 고뇌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시구에 나타난 시적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문제이다.

㉠은 장수산의 고요로 자신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정서적 갈등이 오히려 크게 느껴진다. 그러한 내적 고뇌를 ‘흔들린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에서 연잎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표현한 것은 외롭고 쓸쓸함에서 오는 화자의 외로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또는 권태로운 일상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감정 등 미묘한 정서의 움직임을 묘사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7. [출제의도] 시상 전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하는 문제이다.

(가)는 ‘장수산’이라는 공간에서 고요하고 적막하며 초월적인 이미지를, ‘옷절 중’에게는 삶에 대한 초월과 탈속의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 즉 공간과 인물로부터 동일한 이미지를 느끼고, 시적 화자는 이 이미지를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간이역 안이라는 따뜻한 공간의 이미지와 역장의 파스한 이미지가 동일하고, 이를 내 마음속에 온기로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8.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의 화자는 비록 지금은 외롭게 혼자 있지만, 누군가 자신을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는 ‘거문고’가 져었지만 ‘소리’가 난다는 것과 ‘화로’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사회 ****

□ 출전 : 이준구, <열린 경제학>

29. [출제의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휴대전화와 놀이 공원의 예를 들어 소비자 잉여와 이부가격제를 설명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친숙한 사례를 들어 어려운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0. [출제의도]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놀이 공원이나 휴대전화 요금제 등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부가격제는 이윤 추구를 최대화하려는 기업의 가격 제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휴대전화는 기본료 이외에 별도로 개별 상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원체계를 갖는다. ⑤의 경우 즉석 사진기는 사진기의 가격 외에 즉석 필름을 또 사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원체계를 갖는 가격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2.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부가격제에서 놀이 공원의 입장료는 일종의 기본료에 해당한다. 곧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고전소설

출전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33. [출제의도] 글의 흐름과 분위기를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독신으로 사는 주인공의 외로운 정서는 달밤과 꽃이 핀 나무를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4. [출제의도] 작중 인물의 처지와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추원문에 ‘어버이께서 여인을 한적한 곳으로 옮겨 초야에 임시로 살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5. [출제의도] 글의 핵심 구절의 의미와 그것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고운 자태의 젊은 여인이 불전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울고 있다. 평탄하게 살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인이 실제로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발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6. [출제의도] 환상성의 개념을 갖고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리포터」는 악의 마왕인 볼드모트와 싸우는 선악 대립이 있지만, 「만복사저포기」는 두 주인공이 서로의 한을 푸는 상생 구조로 선악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언어

출전 : 김선철, <표준 발음법의 원리>

37.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 답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어휘가 장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국어의 전통성과 관련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9.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접두사 ‘한-’은 ‘바깥, 한창이다, 같다, 크다, 일시에’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제시문에서 밑줄 친 ‘한-’은 ‘한창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실에서 고착된 관용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③, ④, ⑤는 국어의 규칙 내지 법칙에 따라 발음을 정한 것이다. ①은 국어의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언중의 현실음을 반영하여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기술

출전 : 사와다 마사아키, <문화재보존과학개설>

4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과 ④는 첫째 문단에서, ③은 둘째 문단에서, ⑤는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문단에서, ‘수침출토목제는 발굴 즉시~건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②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말라버린 고블릿을 복원하는 절차는 ‘증기로 열을 가해 부드럽게 한 뒤 형상을 회복시키고 알칼리 용액에 넣고 끓인다.→목제품의 형상에 알맞게 형틀을 만들어 붙여 지지한다.→제품에 함유된 수분을 알코올로 치환한다.→알코올에 용해된 PEG를 넣어 목제품에 스며들게 한다.→강화된 목제품을 꺼내 파편을 맞춰 정형한다.→진공 동결 건조시킨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안선에서 소금기를 빼는 과정은 발굴된 뒤 바로 실시하는 과정이고 그 뒤 물기를 빼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블릿에서 수분을 알코올로 치환하는 과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회곡

출전 : 유치진, ‘소’

44.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과 현실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국서네는 소를 빼앗기고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소송 비용이 과다해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5. [출제의도]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작품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국진은 국서와 논임자의 갈등을 중재하며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국진이 논임자와 소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한다고 글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6.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국진은 소송을 하려면 ‘소’ 값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설령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논임자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소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논임자와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국서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7.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은 국서가 도지의 대가로 소를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국서는 소를 빼앗기게 되어 원통해 하며 절망한다. 그러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라는 연기 지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예술

출전 : 정한조, <사진 감상의 길잡이>

48. [출제의도] 제시된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 보는 문제이다.

①은 첫째 문단에서, ③은 둘째 문단에서, ④는 셋째 문단에서, ⑤는 다섯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②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9.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노출’을 빛의 양을 측정하는 개념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발견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핵심 정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보통의 사물

자체이며, ㉢를 통해서 ㉠는 ㉡로 새롭게 인식된다. ‘이름’이라는 명명 행위를 통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 ‘꽃’ 또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는 ㉠와 ㉡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